

통계청이 사육비와 우유생산비를 조사하는데, 우유생산비는 목장원유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규모별 사육비는 우유생산비와 더불어 규모별 농가의 수익구조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개체별 생산비를 계산하기위하여 이들 사육비와 우유생산비 자료를 모수로 활용하여 개체별 자료를 생성하였다. 유대체계의 전면적 개편 전의 2010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유단백질을 포함한 유대체계는 2014년부터지만 시행되지만 통계청의 생산비는 새해 5월이 지나야 전년도 생산비 조사 분석 후 공표되므로 분석시점인 2016년에는 1년 전의 2015년 생산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5년 생산비를 모수로 개체별 생산비를 생성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유생산비를 모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Table 1-4에 2010년과 2015년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